

이 자료는 2024년 5월 30일(목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서울특별시장 동정자료



■ 매수 : 2매 ■ 사진 : 일정종료직후 제공 웹하드(press.webhard.co.kr) ID/PW:press1

담당 :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	2133-6205	신문팀장	2133-6207	담당자	2133-6253
이준형		김경진		정수민	

오세훈 시장, 30일(목)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 정영선 작가와 대담

-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(목) 16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(종로구 삼청로 30)에서 대한민국 1호 여성조경가이자 시인 정영선 작가와 조경작품 전시를 관람하고 '정원도시 서울' 정책을 화두로 대담한다.
- 1975년 서울대학교 조경학과(1기)를 졸업한 정영선 작가는 1980년 국내 여성 1호로 국토개발기술사(조경)를 취득했다. 이후 조경설계 서안(주) 대표, 서울대 조경학과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고 작년 9월에는 '조경계의 노벨상'이라 불리는 제프리 켈리코 상(세계조경가협회)을 수상했다.
- 대표작으로는 예술의전당(1984), 샛강생태공원(1997), 선유도공원(2002), 청계광장(2005), 경춘선숲길(2016), 아모레퍼시픽 신사옥(2016) 등이 있다.
- 오 시장은 지난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<정영선: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(Jung Youngsun: For All That Breathes On Earth)>를 관람한 뒤에 지하 1층 전시마당에 조성된 정영선 작가의 정원에서 이야기 나눈다.
- <이 땅의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>는 정영선 작가가 50년간 작업해 온 5백여 점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로 오는 9월까지 열린다.

- 오 시장은 남산, 한강 등 서울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시·생태 경관을 만들어 낼 방법에 대해 묻고 서울에 '가장 어울리는 경관'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. 또 스트레스, 은둔·고립, 우울감 등 현대인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'정원'으로 치유해 줄 해법과 '정원도시 서울' 정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.
- 대담 시작 전, 오 시장은 정영선 작가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'서울색 소반'과 서울 캐릭터 '해치와 소울프렌즈' 인형을 선물하고 정영선 작가는 직접 가꾼 미나리아재비 등이 담긴 '야생화 꽃다발'로 화답할 예정이다.
- 평소 작품에도 우리 꽃을 많이 심기로 유명한 정영선 작가는 이날 자신에게 '조경가로서의 초심'과 '강인한 생명력'을 의미하는 미나리아재비를 비롯한 야생화를 양평 집 앞마당에서 직접 엮어와 오 시장에게 전한다.

■ 「정영선 조경가와의 대담」 일정

시 간		내 용
16:00~16:25	(20')	○ 전시 관람 - '정영선: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' 관람(해설: 이지희 학예사)
16:25~16:55	(30')	○ 선물교환 후 대담 진행
16:55~17:00	(5')	○ 기념 촬영

※ 관련 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녹지정책팀장 황성묵 ☎2133-2012